

가속붙는 F1, 정부가 브레이크

노건호씨, 박회장에 받은 돈 외삼촌 회사에 투자

정치권·전문가 지원법 제정 촉구 등 한목소리와 대조 “발목잡기 그만...적극 지원 나서야” F1 국제포럼 지적

정치권이 ‘포틀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F1지원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전문가들도 F1대회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정부만 제동을 걸어 ‘딴지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내년 첫 F1대회 개최를 앞두고 경주장 기공식까지 마친 상황에서 정부가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형평성 문제 등 고답적이고 뚜렷하지 않은 논리를 버리고 대회 준비에 적극 협조하는 전향적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2차 코리아 F1 국제포럼’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박종근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위원장은 “특위 차원에서 F1지원법 제정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예산확보, 인프라 구축 등 행정·재정적 지원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고홍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장은 “F1대회 개최가 경제적 수익에 그치지 않고 국가홍보, 관광산업 발전, 국가 브랜드 제고 등 사회문화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국가행사만큼 상임위 차원의 관심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 레이스 출신인 기노시타 노보루씨와 안톤 솔츠 조선대 교수 등은 F1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내세우며 2010년 F1 코리아 그랑프리 성공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말에도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F1대회 지원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입법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특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반응과는 달리 정부는 여전히 F1대회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보이며 뒷집만 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부처는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앞두고 소속 의원에게 배포한 ‘포틀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이란 자료에서 ‘F1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국내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 및 서남해안 관광대

저도시 개발의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국가 주도의 공공성 미흡, 낮은 사업 타당성, 타 기업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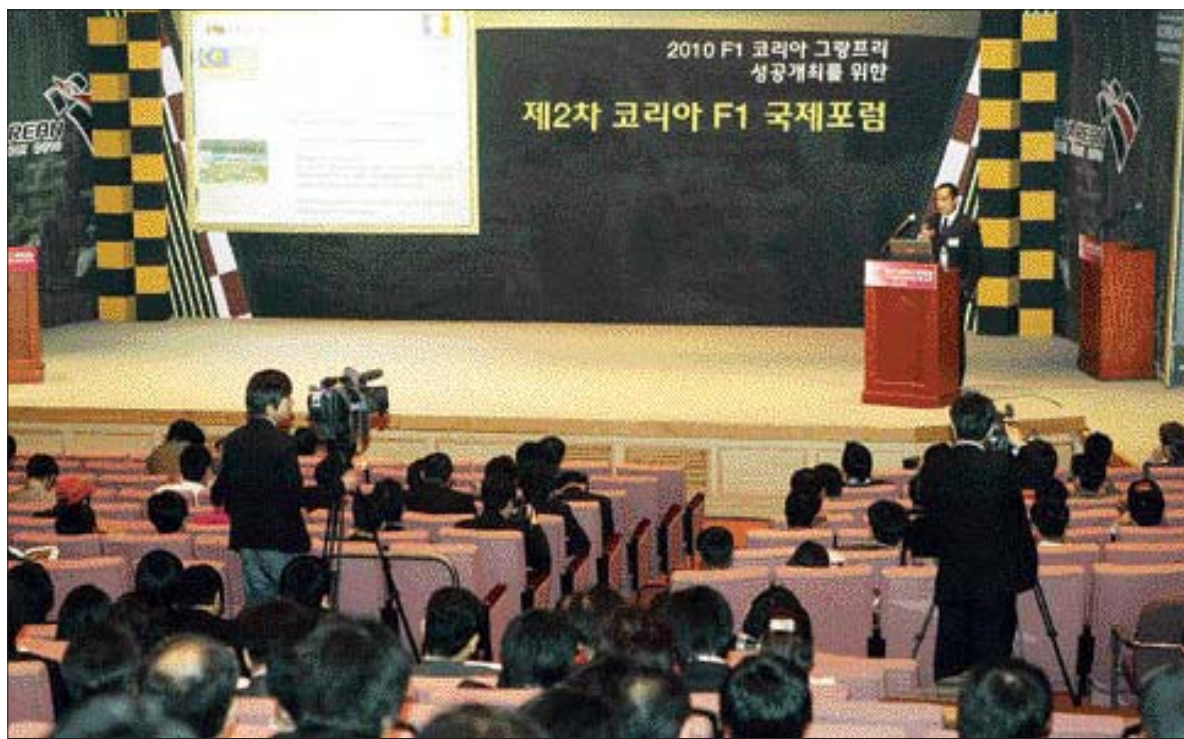
도한 국가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지원법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입태희 정책위의장과 전남도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대부분 수정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반응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정부는 애초 적극 검토하던 ‘F1대회 경기장 건설비 530억원 추경성, 타 기업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과

대 대통령의 ‘적극 지원’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F1대회 지원은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이 호남과 전남도지사에게 한 공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부정적 의견을 고집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리아 F1 국제포럼’ 발제자로 나선 라자 목타르 말레이시아 F1 대회 관계자가 ‘F1을 통한 말레이시아 관광산업 발전’시례를 발표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유선호, 고홍길, 전병헌, 박종근, 강운태, 김동철, 김영록, 김재균, 임두성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견호씨가 대주주인 ‘엘리쉬&파트너스’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수 억원을 외삼촌 권기문씨가 운영하는 국내 회사에 우회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기사 5면>

검찰은 ‘엘리쉬&파트너스’가 미국 P사 등을 거쳐 국내 A사와 O사에 투자한 내역을 확보, A사의 대표이자 권양숙 여사의 동생 기문씨와 O사 대표 정모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으며 기문씨는 조만간 재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가 박 회장으로 부터 송금받은 500만 달러에 대해 견호씨가 전반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는지 보기 위해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와 ‘엘리쉬&파트너스’의 자금거래 내역을 추적, 거의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내용에 비해 견호씨가 연씨와 함께 투자를 결정하는 등 박 회장의 500만 달러를 이용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검 중수부는 이날 강금원 창신산업 회장을 불러 2007년 8월 그가 박 회장,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대책을 논의했다는 ‘3자 회동’과 ㈜봉화에 투자한 70억원의 출처와 사용처를 캐물었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박 회장의 사업 전반에 도움을 주려고 개입한 정황을 잡고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주말까지 주변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노 전 대통령을 600만 달러에 대한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공개소환할 예정이다. <연습뉴스>

IAEA 검증팀, 평양 떠나 빈으로

북한에서 추방당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이 16일 베이징의 서우두(首都)공항을 거쳐 IAEA 본부가 있는 빈으로 떠났다. <관련기사 5면>

북한의 영변 핵발전소 작업을 감시 해온 IAEA 검증요원 4명은 이날 낮 12시30분께 고려항공편으로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후 오후 1시55분 여객기를 갈아타고 빈으로 향했다. <연습뉴스>

검증팀은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IAEA에 제출할 보고서와 참고자료”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IAEA 검증팀과 미국의 핵 불능화 전문가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북한을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렸다. <연습뉴스>

정부 대규모 감세정책에 휘청이는 지방재정

광주·전남 교부금 3천500억 줄어

자동차 감세도 영향...지방세수 감소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가뜰이나 열악한 광주시와 전남도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감세에 따른 정부의 재정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복지비 지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의 차질·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6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올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내국세 세입예산을 애초 141조8천억원에서 11조4천억원 감액함에 따라 지방교부금이 당초보다 2조2천억원 감소한 25조1천억원에 그치게 됐다.

지방교부금은 정부가 거둬들이는 내국세의 19.24%를 떼어내 광주·

전남도 등 자치단체에 주는 재원이 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경우 올해 지방교부금이 당초 4천663억원에서 388억원 감소한 4천275억원으로 줄게됐다.

특히 전남도는 지방 교부금이 당초 3조7천660억원에서 무려 3천134억원이 준 3조4천526억원으로 분석돼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의 감액 규모는 경북(3천477억원)과 함께 전국 최상위권이다.

시·도는 이로 인해 각종 지방교부금 사업인 도로·교통·상하수도·복지사업 등의 예산이 큰폭으로 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가 2000년 이전(1999년 말까지) 등록된 노후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때 세금을 70% 깎아 주기로 한 것도 큰 부담이다.

이에 따르면 국제(개발소비세) 150만원, 지방세(취·등록세) 100만원 등 250만원까지 세 부담이 줄게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실제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자동차 취득세 153억, 등록세 348억원 등 501억여원의 세수를 올렸으나, 올해는 62억7천만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광주 시내 차량 47만여대 가운데 33%가량인 15만6천여대가 감세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도 큰 폭으로 자동차 취·등록세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감액 폭이 너무 커 기획재정부에 다른 지원보조금 등

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해놓은 상태이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현 상태를 유지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재정난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시가 지난해 제15회 남도음식문화관찬치 행사 기간에 도전한 ‘가장 긴 고추 줄 만들기’가 기네스북 세계 최고 기록 인증을 받았다. 16일 순천시는 지난해 행사 기간에 행사장을 찾은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고추 2만9천37개(1천395m)로 만든 ‘고추 줄’(사진)이 영국 기네스 월드레코드사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세계 최고 기록으로 인증됐다고 밝혔다.

세계 최장 ‘1,395 m 고추줄’

순천시 기네스북 기록 인증

기네스북 세계최고 기록 인증서 전달식은 17일 기네스월드레코드 회원사인 한국 기록원의 주관으로 순천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순천시 관계자는 “세계 최고 기록 인증으로 오는 10월에 개최될 제16회 남도음식문화관찬치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이번 ‘가장 긴 고추 줄’ 기네스북 인증으로 광주·전남 최초로 기네스북 세계기록을 보유한 자치단체가 됐다.

제1회 세계슬로우걷기축제

The 1st World Slow Walking Festival

기간 2009년 4월 18(일) ~ 4월 19(월) 2009년 4월 18(일) PM 2000원, 2009년 4월 19(월) PM 2000원, 선착순 1000원

1일차 18일 18:00 - 21:00 선착순 1000원, 2009년 4월 18(일) PM 2000원, 2009년 4월 19(월) PM 2000원, 선착순 1000원

2일차 19일 18:00 - 21:00 2009년 4월 19(월) PM 2000원, 2009년 4월 20(화) PM 2000원, 선착순 1000원

입장 행사 선착순 1000원 프로그램은 별도이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참고> 2009년 4월 18(일)부터는 조기종료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문의처 : www.SLOWCITYWANDO.com

전화문의 : 061-500-5000/5050

주최 : 한국, 국내여행산업진흥원

주관 :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도, 한국관광사립협회, 광주광역시